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여기까지 영원히

성경: 사무엘하 7장 18-29절

Tag:

18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엔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19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20 주 여호와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21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22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 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25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였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
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
게 하옵소서 하니라 (삼하7:18-29)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생겼다.

사람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이런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
타 오르면 그 열정과 충성심을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여 영적 과잉행
동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당시의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변에 어떠한 정적도 있을
수 없었다.

상황이 이러면 보통 왕들은 교만해지며, 치적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피라미드가 되었든, 성전이 되었든,
후대에 길이 남을 문화유산이 된다. 거대한 댐이나, 운하나 도시건설
은 사회생활에 지대한 유익을 주므로 현대 대통령들의 가장 선호하
는 집권 목적이 되기도 한다.

다행히 다윗은 하나님과 무척 친근하였다. 하나님은 다윗의 넘치는
열정을 멈추고 신앙의 본질을 되찾게 하셨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다. (다윗이 먼저 나단과 상의 하
였다.)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동료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
똥한 열정을 방지토록 하신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앞 부분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
시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제할 것과 다윗의 뒤를 이을 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계시해 주셨다.

놀랍게도 다윗은 여기에 순종한다. 얼마든지 자신의 귀에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해 주는 선지자를 가까이 둘 수 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했다.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리더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리더도 중요하지만, 순종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구의 뜻에 순종하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내가 영적인 리더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뚝을 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안내하신다.

물론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모두 다윗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만, 아무도 **다윗의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러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은 거룩한 일이다.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며, 의무를 다하는 것이 복이고 즐거움이다.

다윗의 성전건축에 대한 열망도 사실은 하나님께 향한 헌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듯 다윗의 충성심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둔 다윗에게 꼭 필요한 영적 자산이 되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다음에 감격하여 하는 일종의 신앙고백이라 할 수 있다.

22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치적에 매몰되지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군주들이 저 지르는 실수를 범하지 않은 셈이다.

*여기까지 (18절)

-목동에서 시작한 다윗

-형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에서 홀로 양들과 동고 동락했던 다윗

-사무엘이 왔어도 아들들 축에 들지 못한 다윗

-그러나 그는 양 떼를 아끼며 보살피며 살았고, 양들을 위하여 위협을 무릎쓰고 헌신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에게 왕 위를 주기로 작정 하셨다.

-그는 술한 험난을 거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가?

-삶의 한 순간 한 순간이 절체절명의 세월이었고, 매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돌파구를 찾았다.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궤가 있는 장막을 사모하였다.

-당시의 하나님의 장막은 이동식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화려함은 사라졌을 것이고 건축술의 발달로 장막이 초라해 보였을 것이다.

-화려한 궁전에 거하게 되면서 다윗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까지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8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상22:8)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는 말)

-다윗에게는 여기까지가 족하다.

- 대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다.
-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헌금을 하였다. 그는 최고급 건축자재를 비축하였다.

-솔로몬의 성전과 타종교의 건축물이 다른 점은 무엇일까?

-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속적 제단에 있다.
- 후일에 이것은 성경과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 되었다.
- 대속적 죽음은 온 인류에 암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죄씻음의 방법이다.(인신공양은 심청전에도 있음)

-오늘날 성전은 소멸되었으나, 성경책과 십자가 신앙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졌다.

-성전이라는 건축물은 예배당으로, 더 깊게는 예배로 남겨졌다.

-즉, 기념 건축물로서의 의미 보다는 예배를 위한 건축물로서의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남겨져 있다.

-성전이나, 예배당의 정체성은 영원한 천국을 지향하고 있다.

*다윗의 집이 영원히...

- 29. 종의 집
- 27.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 26. 주의 종 다윗의 집
- 25.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 19.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 18.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주의 백성, 택하신 백성, 믿음의 백성, 그 나라, 다윗의 나라, 예수
님을 믿는 백성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하리라.

<기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여곡절이 있었고 파란만장한 세월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
기며 믿음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

-항상 그렇듯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으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으니 감사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소서.

-약속을 믿고,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겠사오니, 우리를 선
하게 인도해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성경: 사무엘상 3장

Tag: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의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4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5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6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이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15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17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8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와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삼상3:1-21)

-하나님의 집에 헌신된 사무엘.

-성전에 거함이 사무엘에게 큰 유익이 됨.

*2. 엘리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갈 때, 그 영성이 점점 나약해 질 때 사무엘을 예비하신 하나님.

3. 여호와와의 궤가 있는 성전 안에 누운 사무엘. 아마 잠자리가 성전 안이었나 보다. 부엌대기 사무엘. 잘 곳이 없어 성전에서 자게 됨.

-그러나 이런 어마 어마한 복이 어디 있을까?

-엘리의 자녀들도 받지 못한 복을 사무엘이 받게 됨.

9. 눈먼 엘리에게 영적인 지도를 받는 사무엘.

19.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

21. 말씀으로 현현하시는 하나님. 본격적인 예언자의 등장.

-성전은 영적으로 보호받는 영역

-사무엘은 서원의 아들, 하나님께 특별히 부탁해서 아이의 출생 목적부터 이미 정해진 자.

-운명적인 인생이라는 뜻은 아님. 목적지향적 인생이라는 뜻임.

-오직 주의 길을 걷는 자는 평생에 평안한 복을 받게 됨.